

집단괴롭힘¹⁾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김혜원 · 이해경

호서대 · 한양대

이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일반학생과 집단괴롭힘 가해자, 피해자들이 사회적 혹은 심리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셋째, 집단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특히 폭력노출이 중요한 예측변인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 827명의 서울시내 여자 중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첫째, 일반학생과 집단괴롭힘 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자 집단간에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에서 몇 가지의 차이가 있어, 사회적 변인들 중에는 학년, 성적, 용돈, 학교 환경 위험도, 가정과 학교의 환경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심리적 변인들 중에는 자존감,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스트레스,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공격성, 폭력노출, 공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예측변인들은 또래폭력, 공격성, 가정폭력, 학년, 매체폭력, 아버지 직업, 학교위험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괴롭힘 피해행동의 예측변인들로는 학교위험도, 교사폭력, 자존감, 교사지지, 아버지 직업, 친구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예측요인과 대처방안이 논의되었다.

국내에서 집단괴롭힘에 대한 관심은 1996년 이후 집단괴롭힘 피해학생의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에 관한 10여편의 연구

들이 보고되었지만 기존의 학교폭력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달리 집단괴롭힘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집단괴롭힘에 대

1) 이 연구에서 집단괴롭힘은 Olweus(1986)의 bullying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한 학생이 집단내 다른 학생의 부정적 행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적 행위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및 사회적 소외를 포함하여 힘의 불균형, 즉, 비대칭적인 세력관계를 전제한다(곽금주, 199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ullying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집단따돌림(예: 곽금주, 1999; 권준모, 1999; 이춘재 · 곽금주, 1999) 또는 집단괴롭힘(예: 강진령 · 유형근, 1999; 한중철 · 이민아 · 이기학, 1999)이라는 두 개의 용어로 동시에 번역,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Olweus가 정의 내린대로 bullying은 사회적 소외와 같은 따돌림 행위의에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bullying은 집단따돌림보다는 집단괴롭힘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들(예: 이춘재 · 곽금주, 199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의 행동특성이 단순한 집단따돌림의 요소보다는 집단괴롭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bullying의 의미를 집단괴롭힘으로 해석하였다.

한 대부분의 연구들(나병현, 1996; 김용태·박한샘, 1997;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박경숙·손희권·송계명, 1998; 이춘재·곽금주, 1999)은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 정도를 조사하거나 가해나 피해의 구체적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는 등 집단괴롭힘 현상의 표면적인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집단괴롭힘 현상의 보다 심층적인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집단괴롭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 집단 중 주로 피해자 집단에 초점을 두고, 집단괴롭힘의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피해자 특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용태·박한샘, 1997; 손진희, 1998). 그러나 집단괴롭힘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집단이나 정상집단이 어떤 사회적·심리적 특성들을 갖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괴롭힘에 대한 상담학적 접근에서는 주로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사례분석이나 개인 혹은 집단상담프로그램(예: 손진희, 1998; 이규미·문영춘·홍혜영, 1998; 이시형, 1998)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는 반면, 대처방안의 내용이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지와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하는데는 제한된 노력을 보이고 있다.

1. 집단괴롭힘(bullying)의 정의

집단괴롭힘은 1970년대 초반 이후에 bullying, mobbing, social exclusion, social harassment, peer abuse, 이지메 등의 용어로 연구되어 왔다. Heineman(1973)은 최초로 mobb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mob은 괴롭힘에 연관된 다수의 익명 집단과 이들 집단이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한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를 동시에 의미한다.

그 후 Olweus(1978, 1984)는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Bullying은 그 개념에 두

가지 중요 요소를 갖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행동이 대체로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 행동들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공격행동을 일컫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집단괴롭힘의 유형은 크게 직접적인 괴롭힘과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괴롭힘이란 피해대상에게 대해 폭행이나 구타 뿐 아니라 위협, 못살게 굴고 놀리는 것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가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괴롭힘은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소외와 내적인 배제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은 이 두 유형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행동을 말한다(Olweus, 1991, 1993).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지메’라는 용어가 소개되면서부터였다. ‘이지메’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 ‘집단괴롭힘’ 혹은 ‘집단따돌림’이며, 이러한 괴롭힘의 결과가 고립과 따돌림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생겨난 용어가 ‘왕따’(왕따돌림 혹은 왕따됨을 받는 아이의 준말), ‘은따’(은근히 따돌림), ‘전따’(전교 따돌림)이며, 이들 은어를 보다 공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집단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강진령·유형근, 1999).

집단괴롭힘은 동양권만의 고유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발생시기와 연구의 축적은 서구문화가 더 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는 집단괴롭힘과 일본의 이지메는 서구문화의 bullying이나 mobbing과는 달리 집단주의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사하게 분류된다. 이지메란 철저한 집단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집단원이 그 집단의 행동(원리)이나 사고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집단 구성원 전체가 그 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집단 학대행위’(모기 유따까, 1996, 이규미 외, 1998에서 재인용)를 말한다. 그러나 집단주의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괴롭힘 현상은 이지메와 비교할 때 집요함이나 잔인성, 집단주의 정도 모두에서 그 수위가 낮다는 차이점을 갖는다(이규미 외, 1998).

집단괴롭힘은 학자들에 따라 학원폭력과 동일한 현

상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엄격하게 구별되기도 한다. 먼저 집단괴롭힘은 그 형태가 주로 비폭력적이라는 점에서 학원폭력과 구별된다. 또한, 청소년 폭력문제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가해행위가 포함되는 반면 집단괴롭힘에는 방관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이규미 외, 1998). 따라서 괴롭힘은 청소년 폭력문제의 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이에 비해 비폭력적이며 심리적 형태의 괴롭힘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학원폭력과 구별될 수 있다. 반면, Olweus(1993)는 학원폭력의 개념을 보다 넓게 정의 내리면서 집단괴롭힘을 학원폭력의 하위범주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학원폭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능동적 폭력과 수동적 폭력이다. 한 학생이나 집단이 한 학생을 상대로 신체적 해를 가하고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능동적 폭력인 반면, 집단괴롭힘과 같이 한 학생을 은근히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는 수동적인 학원폭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괴롭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는가? 집단괴롭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춘재와 박금주(1999) 연구에서는 가해자 혹은 가해집단이 피해학생에게 다음과 행동을 하는 경우를 집단괴롭힘으로 정의한다. 집단괴롭힘은 첫째, 상스럽고 불쾌한 말이나 욕하는 것, 둘째, 완전히 무시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고의적으로 끼워주지 않는 것, 셋째, 매리거나 발로 차거나 밀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 넷째, 사실이 아닌 헛소문을 내거나 나쁜 소문을 내서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게 만드는 것, 다섯째, 한 학생을 부정적이고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여러 번 놀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집단괴롭힘의 원인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집단괴롭힘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집단괴롭힘의 원인은 첫째는 한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요인들과 둘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들에서 나타난 사회적, 심리적 원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들 중 본 연구의 관심 요인들과 관련된 것에 대해 간략히 개관하기로 한다.

1) 집단괴롭힘의 사회적 원인들

한 개인이 갖는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들은 집단괴롭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가해자가 갖는 공격성이 부모의 애정과 관여의 결핍, 공격성을 허락하는 정도, 부모의 신체적 체벌이나 격렬한 감정폭발과 같은 양육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부부가 자녀 앞에서 충돌하는 것은 자녀가 후에 공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Olweus, 1977). 그러나 가해자의 공격성이 사회경제적 조건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자녀양육방법과 상관이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Olweus, 1977). 또한 김준호와 김혜원(1977)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분위기와 결손가정은 비행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에 가정수입이나, 부모의 교육정도, 학교적응, 성적, 비행친구들은 청소년 비행과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집단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비교한 바는 박경숙과 손희원 및 송계명(1998)의 연구와 이춘재와 박금주(1999)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춘재와 박금주(1999)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500명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한달 총수입에서 피해학생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 100 - 150만원 미만, 150 - 300만원, 300만원 이상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가해학생은 150 - 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 - 150만원, 3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순서로 나타나, 피해학생에 비해 가해학생이 경제적 수준에서 더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 보면 피해학생은 판매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무직과 숙련직, 관리직, 반숙련직, 무직, 단순노동직, 전문직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은 판매직, 사무직과 관리직, 숙련직과 전문직, 단순노동, 반숙련직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 보면 피

해여학생은 성적이 중간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간 미만, 성적 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여학생 역시 성적이 중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간미만, 성적 하로 나타나 성적에서는 피해여학생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2) 집단괴롭힘의 심리적 원인들

(1) 스트레스와 좌절,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자들은 집단괴롭힘이 야기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입시위주, 통제위주의 교육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강조한다(구본용, 1997). 현재 우리사회에서 취학 순간부터 대학입학 직전까지 한 개인이 받게 되는 모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진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또래와의 경쟁이나 긴장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런 환경은 학생들을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 욕구의 좌절은 분노를 야기하고 따라서 공격과 폭력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욕구의 좌절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구창모, 1991; Barker, Dembo, & Lewin, 1941).

일반적인 청소년 폭력과 같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 또한 욕구불만이나 학업실패로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Olweus(1978, 1983)가 보고한 결과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년간의 연구에서 그는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444명의 남학생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하였고, 그 결과 집단괴롭힘 행위는 불량한 성적이나 학업실패와 무관함을 밝혔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대해 장기종단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없어서 그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욕구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보고한다(D'Zurilla & Goldfried, 1973). 비행청소년들은 정상아동들에 비해 폭력이나 비행이외의 다른 건설적인 대안적 문제해결방식을 생성해내지 못하며, 창출된

대안 중 폭력을 사용하거나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공격적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손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은 욕구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설적인 대안적 문제해결양식을 택하기보다는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스트레스의 대처 방식에서도 비효율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우리 나라 연구들에서 볼 때 입시위주의 교육에 의한 스트레스와 좌절이 청소년의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구창모, 1991)는 있지만 실제 집단괴롭힘의 원인임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는 없었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이 공격적인 문제해결양식을 사용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이 정상아동과 비교하여 학업스트레스와 좌절에 대처하는 바에 차이가 있는지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결여되어 있다.

(2) 폭력노출

집단괴롭힘을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청소년들이 대중매체, 가정, 학교, 또래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온 경험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우리사회의 폭력성은 청소년집단의 집단괴롭힘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혜성, 1997). 한 보고에 따르면 평균 16세의 미국 청소년들은 TV에서 연간 약 13,000건의 살인을 목격한다고 한다(Waters & Malamud, 1975; 장취숙, 1993에서 재인용). 또한,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나 잡지, 인터넷, 컴퓨터 오락에서 보여지는 선정성, 폭력성은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여가활용 방법중 가장 빈번한 것이 TV시청을 포함한 대중매체감상(통계청, 1996)임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중매체가 폭력노출의 주된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는 혼육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사나 부모의 체벌이 포함되며, 이는 또래들간에 일어나는 폭력보다 그 수위

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폭력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에게 있어 또래관계에서의 폭력노출은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청소년기는 또래가 주는 사회적 지원, 안정감, 모델링을 위한 행동 표준과 같은 기능에 큰 비중을 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집단괴롭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청소년 비행의 많은 부분은 또래에 대한 동조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병기, 1999).

그렇다면 폭력노출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집단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폭력노출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폭력이 집단괴롭힘과 같은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폭력의 수법이나 과정으로 모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타인을 모방하려는 경향성이 강한 청소년들은 모방 대상이 폭력적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쉽게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Bandura, Ross, & Ross, 1961). 이 같은 모방 경향성은 폭력의 전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Tarde(1903)는 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극적인 범죄에 관한 뉴스가 다른 지역에서 빈번한 모방적 범죄를 일으켰음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이를 두고 전염성 폭력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로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갖게 되는 폭력에 대한 둔감화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결핍이다. 폭력노출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폭력노출이 증가할수록 개인들은 폭력에 대한 정서적인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폭력적 장면들에 대해 점점 둔감화된다고 한다(Mullin & Linz, 1995). 따라서 주변의 환경과 자신의 환경사이에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발달단계인 청소년기에 과도한 폭력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폭력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무감각적인 성향을 키워나가게 할 수 있다. 실제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은 보통 학생들보다 폭력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Olweus, 1994), 공감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Rigby, 1993).

(3) 공격성

집단괴롭힘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해자들이 정상아동들에 비해 공격적 특성을 더 가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어떤 개인들은 다른 개인들에 비해 분노를 더 쉽게 경험하고, 따라서 공격행동과 폭력에 성격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보고한다. 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로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주장적 반응이나 타협 등의 적응적 대안보다는 공격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조성호, 1999). 실제로 폭력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가장 빈번히 발견, 보고되고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분노와 공격성이 언급되곤 한다(이시형, 1997; 정지민, 1998).

(4)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Reasoner(1994)는 폭력과 범죄에 관한 1,000여 개의 연구논문과 언론 기사를 개관, 검토하면서 낮은 자존감이 여러 종류의 범죄나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Reston(1995)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순(1991)의 연구에서도 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양상을 보인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단괴롭힘에서도 피해자 집단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Slee, 1994; Austin & Joseph, 1996). 또한 국내의 연구들에서 볼 때 흥미롭게도 집단괴롭힘의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춘재·곽금주, 1999; 한종철·이민아·이기학, 1999).

집단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간에는 사회적 지지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춘재와 곽금주(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정상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의 순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는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낮았고, 정상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집단괴롭힘 피해집단에 비해 가해집단이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는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집단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집단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을 각각 다루어 온 반면, 이에 관한 심리적 변인들을 사회적 변인들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의 기초연구로서 집단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집단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들은 사회적 혹은 심리적 특성에서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특히 폭력노출이 중요한 변인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 조사 대상자

서울시내 여자 중학교 1, 2, 3학년이 재학하는 827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교에는 각 학년 당 8학급씩 총 24개 학급이 있으며, 한 반은 평균 38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된 설문지를 학생들의 휴롬시간을 이용하여 학급별로 일제히 배부하고 학생들의 응답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려 회수하였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배경 변인들

A. 학생관련변인: 학생들의 학년과 연령, 한 달에 쓰는 평균용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학교성적, 개인적인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해 질문

하였다.

B. 가정관련변인: 부모의 생존여부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대해 질문하였다.

C. 주변환경변인: 집과 학교의 주변환경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이런 주변환경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동일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위험도는 객관적인 학교위험도이기 보다는 학생들 개인이 주관적으로 학교의 주변환경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준다.

2) 심리적 변인들

A.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이영자(1996)가 수정한 10문항 중 내적 일치도가 떨어지는 1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 = .84$). 이들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B.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Duban과 Ul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를 번안(이명화, 1998)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은 가족지지(신뢰도계수 $\alpha = .92$), 또래지지(신뢰도계수 $\alpha = .86$), 교사지지(신뢰도계수 $\alpha = .80$)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C. 스트레스: 정미영(1993)이 최해림(1986)의 스트레스 척도를 기초로 제작한 16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적 일치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한 대인관련 스트레스 5문항(신뢰도계수 $\alpha = .73$)과 학업관련 스트레스 8문항(신뢰도계수 $\alpha = .80$)의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D.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5문항의 대처방식척도를 정미영(1993)이 요인분석하여 제작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종 스트레스 대처 방식

에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을 포함한 적극적 대처 11문항(신뢰도계수 $\alpha = .80$)과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포함한 소극적 대처 10문항(신뢰도계수 $\alpha = .68$)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E. 공격성: 공격성은 Dodge(1980)의 질문지를 광금주(1992)가 수정 제작한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신뢰도 계수 $\alpha = .76$). 이들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F. 폭력노출: 폭력노출 정도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폭력의 정도를 가정내의 폭력 7문항(신뢰도계수 $\alpha = .81$), 교사의 폭력 5문항(신뢰도계수 $\alpha = .81$), 또래의 폭력 6문항(신뢰도계수 $\alpha = .70$), 대중매체의 폭력 5문항(신뢰도계수 $\alpha = .83$)의 4가지로 구분하여 총 23문항을 질문하였다. 가정폭력노출과 교사폭력노출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4개 하위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1)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들은 경험, (2)빚자루나 물건 등으로 매를 맞은 경험, (3)손으로 맞거나 발로 차인 경험, (4)실제로 맞거나 욕설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로 무서움을 느낀 경험이다. 또래폭력의 노출은 (1)또래들이 다른 학생을 욕설, 신체적 폭력 등으로 괴롭히는 것을 본 경험, (2)또래간 집단싸움에 가입한 경험, (3)또래간 집단싸움의 목격경험, (4)학교내 혹은 학교주변의 폭력동아리의 개수, (5)폭력동아리에 가입해 있는 친구의 수, (6)이제까지 폭력동아리에 가입한 횟수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대중매체폭력은 (1)TV, (2)영화나 비디오, (3)컴퓨터, (4)게임기, (5)만화나 잡지에서 폭력노출 경험을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1점: 한 번도 없었다~5점: 거의 매일 있었다)에 평정하게 하였다.

G. 공감: 공감능력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상담에서 공감수준을 진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감 측정 방법은 Carkhuff(1969)의 척도를 응용하여 부모-자녀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내용(김정수, 1997) 2개와 친구관계나 따돌림에 관련된 내용(이회경, 1999)

2개의 총 4개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 = .50$). 이들 질문에 대한 각 반응들은 공감 1수준에서 5수준까지 모두 다섯 개의 예들을 제시하였고, 여기서 1수준은 공감수준이 가장 낮은 반응이고 5수준은 가장 높은 공감반응을 의미한다.

H. 둔감화: 둔감화의 정도는 Mullin과 Linz(1995)연구에서 사용된 둔감화 지표를 이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둔감화의 정도는 '학교폭력 사례'를 제시하고 이 사례에서 나오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 측정하였다. 측정내용은 (1)피해자가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가? (2)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동정심을 느끼는가에 대해 묻고 각 물음에 대해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 = .80$).

I. 집단괴롭힘의 경험: 집단괴롭힘의 가해도와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괴롭힘의 정의(이춘재, 광금주, 1999)에 해당하는 각 6개의 행동항목들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에 "집단괴롭힘을 한 경험이 있는가"와 "집단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하위 항목은 (1)욕하거나 심하게 놀리기, (2)고의로 끼어주지 않거나 무시하기, (3)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위협하기, (4)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손상하기, (5)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을 하기, (6)헛소문으로 친구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게 하기에 대한 6개 항목이며 이들을 5점 척도(1점: 전혀 없었다~5점: 거의 매일 있었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신뢰도 계수 $\alpha = .85$).

3. 집단괴롭힘에 대한 집단 구분

위에서 측정한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점수를 기초로 학생들을 정상집단과 가해자 집단, 피해자 집단, 가해피해자의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상집단은 지난 6개월 동안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말한다. 가해집단은 지난 6개월 동안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한 번도 없고 가해행동만 1번 이상 있었던 학생들이면, 피해집단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은 한 번도 없고 피해경험만 1번 이상 있었던 학생들이다. 한편, 가해

표 1.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징

변 인	반응항목	사례수(%) / 평균(SD)	변 인	반응항목	사례수(%) / 평균(SD)
학년	1학년	269명(32.5%)	가정수입	100만원미만	112명(13.5%)
	2학년	271명(32.8%)		100 - 199만원	281명(34.0%)
	3학년	287명(34.7%)		200 - 299만원	202명(24.4%)
나이		13.9세(.97)		300 - 399만원	60명(7.3%)
	부모	친부모		748명(90.4%)	400만원이상
기타		61명(7.4%)		용돈	5만원이하
父학력	초등졸	29명(3.5%)	6 - 10만원		98명(11.9%)
	중졸	71명(8.6%)	11 - 15만원		10명 (1.2%)
	고등졸	452명(54.7%)	16만원이상		3명(0.4%)
	대졸이상	247명(29.9%)	거주지	본인집	813명(98.3%)
母학력	초등졸	35명(4.2%)		친척집	3명(0.4%)
	중졸	135명(16.3%)		하숙, 자취	0명(0%)
	고등졸	522명(63.1%)		기타	8명(1.0%)
	대졸이상	101명(12.2%)	성적	上	130명(15.7%)
父직업	무직	25명(3.0%)		中	476명(57.6%)
	생산노무직	56명(6.8%)		下	210명(25.4%)
	서비스직	61명(7.4%)	친구수	1명	113명(13.7%)
	판매직	138명(16.7%)		2 - 4명	479명(57.9%)
	사무직	183명(22.1%)		5 - 7명	149명(18.0%)
	전문관리직	68명(8.2%)		8 - 10명	39명(3.5%)
	기타	262명(31.7%)		11명이상	38명(4.6%)
母직업	무직	385명(46.6%)	환경위험도	집	2.09(1.02)
	생산노무직	22명(2.7%)		학교	2.01(0.90)
	서비스직	98명(11.9%)	환경만족도	집	1.76(.54)
	판매직	131명(15.8%)		학교	1.39(.52)
	사무직	36명(4.4%)			
	전문관리직	25명(3.0%)			
	기타	106명(12.8%)			

피해집단은 지난 6개월 동안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 경험 모두가 한 번 이상 있었던 학생들이다.

결 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일반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13.9세였고, 대부분의 경우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모 직업의 경우 아버지들은 사무직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반면 어머니들

은 무직과 판매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의 총수입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용돈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은 한달 평균 5만원 이하의 용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거주지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성적은 중간정도의 성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수에서 볼 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평균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일반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은 친구로부터 가장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반면 교사로부터는 가장 적은 정도의 지지를 받

표 2.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반응범주	평균(SD)
자아존중감		3.38(.70)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3.66(1.01)
	교사지지	2.72(.59)
	친구지지	3.78(.74)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3.42(.79)
	대인스트레스	2.16(.75)
스.대처양식	적극적 대처	3.05(.60)
	소극적 대처	3.28(.56)
공격성		2.16(.72)
폭력노출	가정폭력	1.57(.59)
	교사폭력	1.72(.78)
	도래폭력	2.18(.65)
	매체폭력	2.16(.89)
공감		2.65(.86)
둔감		1.70(.81)

표 3. 집단괴롭힘의 평균 경험빈도와 사례수

변 인	평균(SD)/사례수(%)
가해경험	1.26(.46)
피해경험	1.18(.44)
정상집단	323명(39.1%)
가해집단	212명(25.6%)
피해집단	81명(9.8%)
가해피해집단	198명(23.9%)
총	814명(100%)

고 있었다.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대인관련스트레스보다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문제에 집중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보다 정서완화적 대처나 소망적 사고 등의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폭력에 노출되어 온 정도에 대해서는 도래폭력과 매체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폭력과 교사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비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지난 한 학기동안 집단괴롭힘을 하거나 당한 정도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한 학기동안 가해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나 평균 1-2

번 정도였고, 피해 경험 역시 한 번도 없거나 1-2번 정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집단괴롭힘을 한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다(정상집단)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가해, 가해피해, 피해의 순으로 학생들의 빈도가 나타났다.

2. 집단괴롭힘 4집단간의 비교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이 정상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의 4집단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사회적 배경변인 중에서 학년과 용돈, 성적, 학교위험도, 집과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집단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양식, 둔감정도를 제외한 모든 심리적인 변인과 폭력노출에서 4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변인들만을 대상으로 추후분석을 실시하였다(Dunnett C 사용). 여기에서는 추후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만을 제시,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표 4와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3학년에는 정상집단이 가장 많은 반면 가해나 피해집단은 다른 학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는 다른 학년에 비해 가해집단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반대로 1학년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피해나 가해피해집단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종합적으로, 3학년은 집단괴롭힘 가해나 피해 모두를 적게 경험하는 가장 건강한 집단인 반면, 1학년은 정상집단이 가장 적고 피해의 정도가 가장 높은 즉, 집단괴롭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집단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1달 동안 받는 용돈(그림 2)에서 보면 4집단 모두 월 5만원 이하의 용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러한 현상은 정상집단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보고한 자신의 성적과 집단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3) 4집단 모두 자신의 성적을 중간 정도라고 보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정상집단에서는 성적을 “상”

표 4.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사례수(%)와 빈도분석결과

변인	정상	가해	피해	가피해	χ^2	변인	정상	가해	피해	가피해	χ^2
학년						가정수입					
1	86(32.6)	72(27.3)	31(11.7)	75(28.4)	23.73***	100미만	36(33.6)	27(25.2)	17(15.9)	27(25.2)	20.55*
2	95(35.4)	83(31.0)	25(9.3)	65(24.3)		100 - 199	112(40.3)	68(24.5)	22(7.9)	76(27.3)	
3	142(50.4)	57(20.2)	25(8.9)	58(20.6)		200 - 299	90(45.0)	56(28.0)	16(8.0)	38(19.0)	
부모						용돈					
친부모	297(40.3)	195(26.5)	72(9.8)	173(23.5)	2.56	300 - 399	23(38.3)	13(21.7)	10(16.7)	14(23.3)	
기타	21(35.6)	15(25.4)	4(6.8)	19(32.3)		400이상	10(29.4)	8(23.5)	2(5.9)	14(41.2)	
부학력						거주지					
초졸	8(27.6)	5(17.2)	5(17.2)	11(37.9)	10.89	본인집	318(39.8)	207(25.9)	78(9.8)	197(24.6)	3.90
중졸	25(36.2)	18(26.1)	4(5.8)	22(31.9)		친척집	1(33.3)	2(66.7)	0(0)	0(0)	
고졸	186(41.9)	115(25.9)	44(9.9)	99(22.3)		하숙, 자취	0(0)	0(0)	0(0)	0(0)	
대졸이상	92(37.7)	69(28.3)	26(10.7)	57(23.4)		기타	3(37.5)	3(37.5)	1(12.5)	1(12.5)	
모학력						성적					
초졸	15(42.9)	6(17.1)	3(8.6)	11(31.4)	5.59	상	62(48.1)	33(25.6)	14(10.9)	20(15.5)	25.06***
중졸	48(37.2)	37(28.7)	12(9.3)	32(24.8)		중	200(42.7)	120(25.6)	36(7.7)	112(23.9)	
고졸	205(39.7)	142(27.5)	53(10.3)	116(22.5)		하	57(27.7)	56(27.2)	29(14.1)	64(31.1)	
대졸이상	44(44.0)	20(20.0)	10(10.0)	26(26.0)		친구수					
부직업						1명					
무직	6(24.0)	3(12.0)	7(28.0)	9(36.0)	28.20*	50(44.6)	23(20.5)	13(11.6)	26(23.2)	20.27	
생산노무	30(53.6)	11(19.6)	5(8.9)	10(17.9)		2 - 4명	197(41.4)	112(23.5)	44(9.2)	123(25.8)	
서비스	25(41.7)	13(21.7)	6(10.0)	16(26.7)		5 - 7명	46(31.7)	54(37.2)	17(11.7)	28(19.3)	
판매	48(35.3)	42(30.9)	7(5.1)	39(28.7)		8 - 10명	12(46.2)	8(30.8)	2(7.7)	4(15.4)	
사무	73(40.6)	50(27.8)	19(10.6)	38(21.1)		11명이상	14(36.8)	13(43.2)	1(2.6)	10(26.3)	
전문관리	22(32.8)	21(31.3)	9(13.4)	15(22.4)							
기타	107(41.6)	65(25.3)	25(9.7)	60(23.3)							
모직업											
무직	153(39.9)	100(26.1)	38(9.9)	92(24.0)	11.09						
생산노무	8(36.4)	4(18.2)	5(22.7)	5(22.7)							
서비스	41(43.2)	24(25.3)	8(8.4)	22(23.2)							
판매	41(32.5)	39(31.0)	15(11.9)	31(24.6)							
사무	17(48.6)	8(22.9)	3(8.6)	7(20.0)							
전문관리	9(36.0)	6(24.0)	2(8.0)	8(32.0)							
기타	47(44.8)	25(23.8)	9(8.6)	24(22.9)							

+ = .05 * p < .05 ** p < .01 *** p < .001

이라고 보고한 비율이 “하”라고 보고한 비율에 비해 높으나 나머지 3집단(어떤 형식으로든 집단괴롭힘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에서는 성적을 “하”라고 보고한 바가 “상”이라고 보고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직업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유의도의 경계선적 수준에서 4집단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표 5와 그림 4부터는 집단괴롭힘 4집단

이 심리적 변인들에서 어떤 차이를 갖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5와 그림 4에서 보여지듯이 정상집단(M = 1.87)에 비해 피해집단(M = 2.18)과 가해피해 집단(M = 2.10)은 학교의 주변환경을 더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과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다(그림 5와 그림 6). 즉, 집주변의 환경만족도에서 볼 때 가해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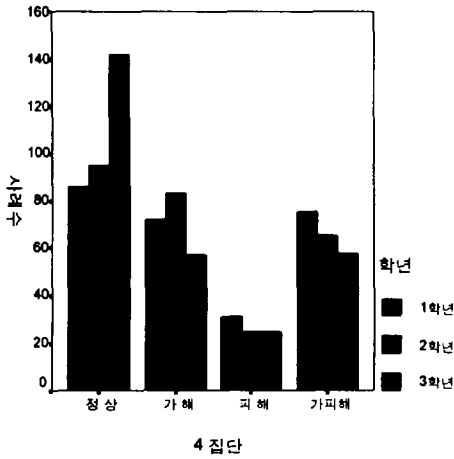


그림 1.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학년별 사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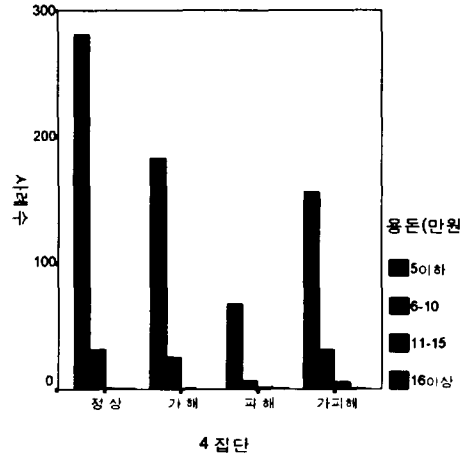


그림 2.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용돈별 사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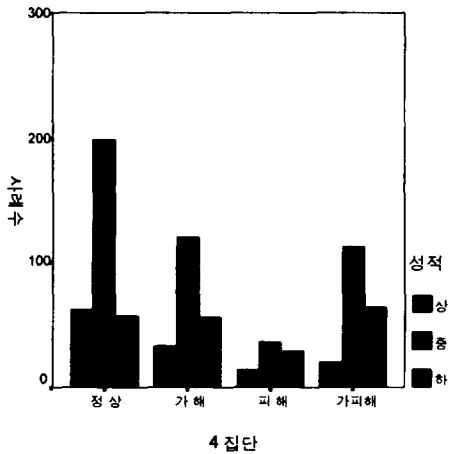


그림 3.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성적별 사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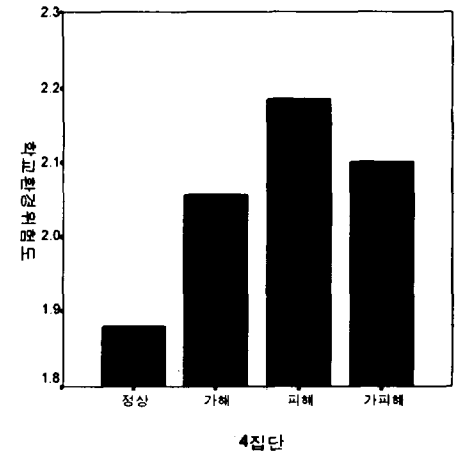


그림 4.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학교환경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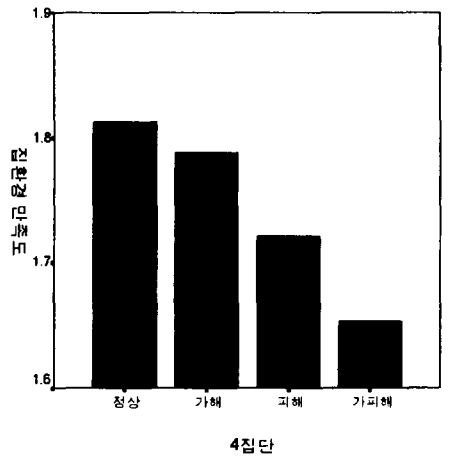


그림 5.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집환경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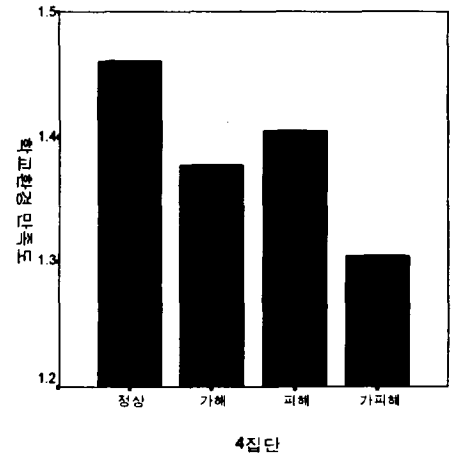


그림 6.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학교환경만족도

표 5.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평균(SD)과 변량분석결과

변인	정상	가해	피해	가피해	F	변인	정상	가해	피해	가피해	F
환경위험도						스.대처양식					
집	2.01 (.99)	2.08 (1.04)	2.30 (.99)	2.17 (1.05)	2.15	적극적	3.03 (.58)	3.07 (.57)	3.09 (.70)	3.06 (.61)	.28
학교	1.87 (.81)	2.05 (.95)	2.18 (.94)	2.10 (.94)	4.10**	소극적	3.16 (.55)	3.35 (.55)	3.28 (.61)	3.38 (.56)	7.78***
환경만족도						공격성	1.91 (.64)	2.28 (.75)	2.05 (.67)	2.49 (.72)	30.67***
집	1.81 (.53)	1.78 (.52)	1.72 (.55)	1.65 (.56)	3.89**	폭력노출					
학교	1.46 (.48)	1.37 (.51)	1.40 (.52)	1.30 (.55)	3.79**	가정	1.39 (.45)	1.60 (.52)	1.56 (.54)	1.82 (.74)	23.89***
자존감	3.51 (.68)	3.44 (.69)	3.23 (.75)	3.23 (.66)	8.11***	교사	1.51 (.56)	1.77 (.78)	1.62 (.78)	2.05 (.93)	21.04***
사회적지지						또래	1.20 (.26)	1.38 (.37)	1.30 (.36)	1.51 (.53)	25.56***
가족	3.86 (.92)	3.71 (1.01)	3.44 (1.07)	3.44 (1.07)	8.59***	매체	1.96 (.79)	2.26 (.87)	2.11 (.97)	2.36 (.97)	10.00***
교사	2.75 (.53)	2.67 (.60)	2.72 (.64)	2.73 (.64)	.84	공감	2.73 (.85)	2.47 (.80)	2.80 (.93)	2.62 (.84)	4.92**
친구	3.84 (.65)	3.94 (.68)	3.54 (.78)	3.66 (.77)	9.04***	둔감	1.66 (.77)	1.75 (.82)	1.60 (.76)	1.77 (.88)	1.47
스트레스											
학업	3.30 (.78)	3.35 (.80)	3.54 (.70)	3.68 (.77)	10.83***						
대인	2.00 (.64)	2.01 (.67)	2.69 (.88)	2.37 (.80)	28.1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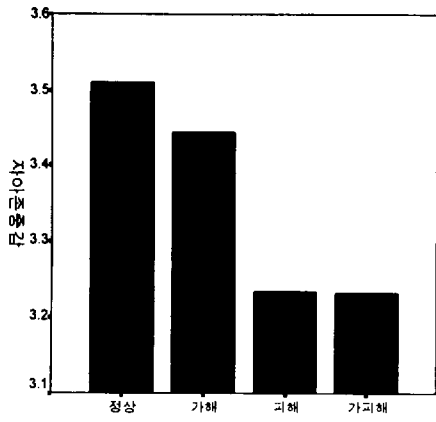
해집단(M = 1.65)은 정상집단(M = 1.81)에 비해 덜 만족하고 있었고 학교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가해피해 집단(M = 1.30)은 정상집단(M = 1.46)에 비해 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집단피로함간의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7), 정상집단(M = 3.51)에 비하여 피해집단(M = 3.23)과 가해피해집단(M = 3.23)은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가해피해집단의 자존감은 가해집단(M = 3.44)에 비해서도 낮았다.

그림 8과 그림 9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회적지지와 집단피로함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에 나타나 있듯이, 정상집단(M = 3.86)은 피해집단(M = 3.44)과 가해피해집단(M = 3.44)에 비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가해집단(M = 3.71)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는 가해피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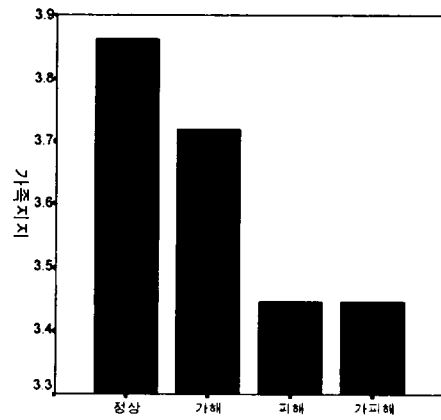
단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친구지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림 9). 정상집단(M = 3.84)은 피해집단(M = 3.54)과 가해피해집단(M = 3.66)에 비해 친구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었고, 가해집단(M = 3.94) 역시 피해와 가해피해집단에 비해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스트레스 경험정도에서 볼 때(그림 10, 그림 11), 피해집단(M = 3.54)과 가해피해집단(M = 3.68)은 정상집단(M = 3.30)에 비해 더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해피해집단은 또한 가해집단(M = 3.35)에 비해 더 많은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대인관련 스트레스는 피해집단(M = 2.69)과 가해피해집단(M = 2.37)이 정상(M = 2.00)이나 가해집단(M = 2.01)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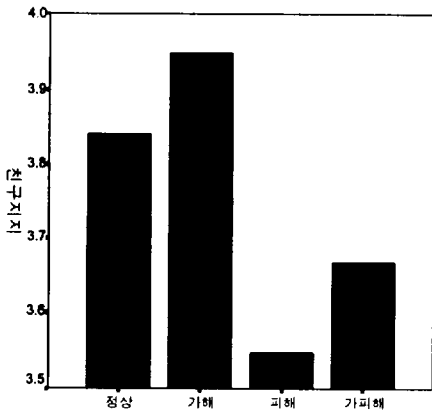
4집단

그림 7.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자아존중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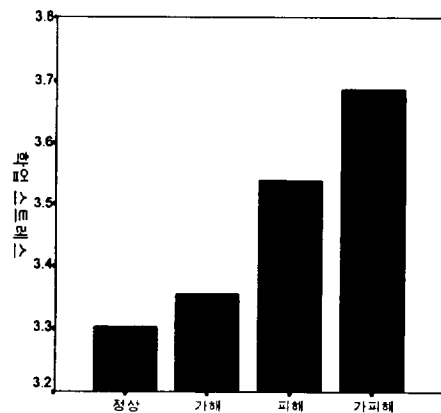
4집단

그림 8.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가족지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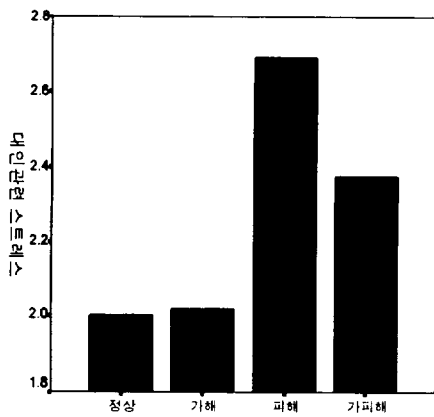
4집단

그림 9.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친구지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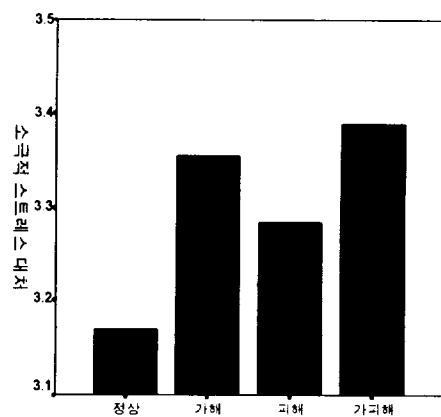
4집단

그림 10.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학업스트레스 정도



4집단

그림 11.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대인스트레스 정도



4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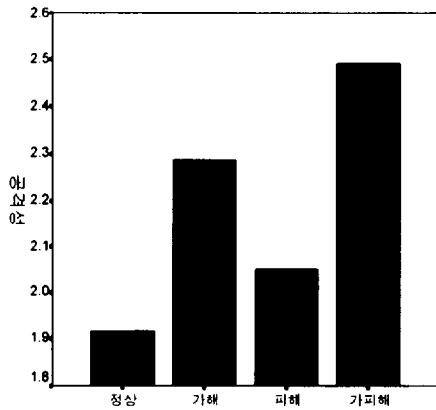
그림 12.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소극적 스트레스대처 정도

있고, 피해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대인스트레스는 가해피해집단의 것보다도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방식(그림 12)에서는 가해집단(M = 3.35)과 가해피해집단(M = 3.38)이 정상집단(M = 3.16)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더욱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향(그림 13)에서는 정상(M = 1.91)과 피해집단(M = 2.05)은 비슷한 정도로 가장 낮은 공격성을 보였고, 다음은 가해(M = 2.28), 가해피해집단(M = 2.49)의 순으로 점점 높은 공격성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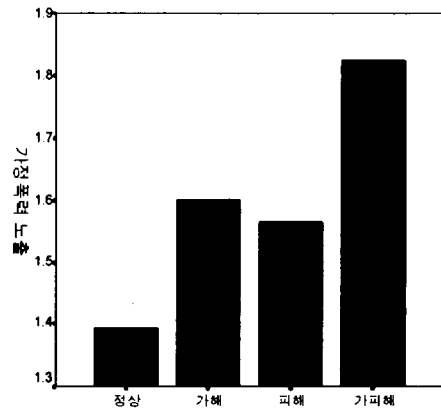
그림 14부터 그림 17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노출되어 온 정도와 집단괴롭힘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해집단(M = 1.60)과 가해피해집단(M = 1.82)은 정상집단(M = 1.39)에 비해 더 많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가해피해집단은 가해와 피해집단(M = 1.56)에 비해서도 더 많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폭력(정상집단 M = 1.51, 가해집단 M = 1.77, 피해집단 M = 1.62, 가해피해집단 M = 2.05)과 또래폭력(정상집단 M = 1.20, 가해집단 M = 1.38, 피해집단 M = 1.30, 가해피해집단 M = 1.51)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매체 폭력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가해집단(M = 2.26)과 가해피해집단(M = 2.36)은 정상집단(M = 1.96)에 비해 대중매체에서의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온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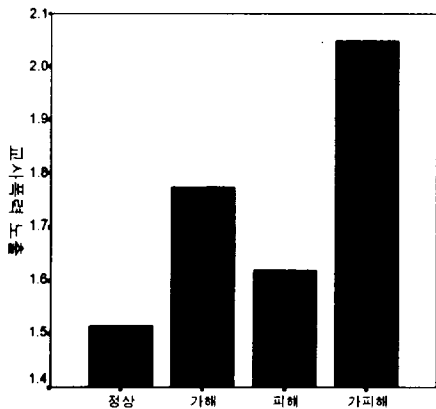
4집단

그림 13.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공격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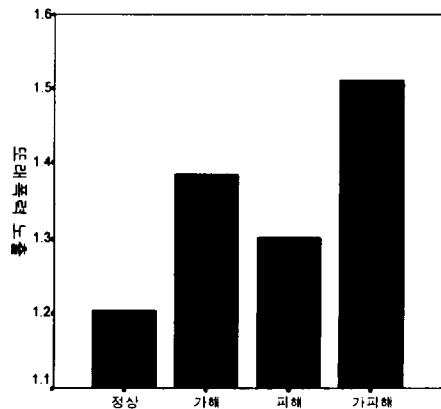
4집단

그림 14.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가정폭력 노출 정도



4집단

그림 15.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교사폭력 노출 정도



4집단

그림 16.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또래폭력 노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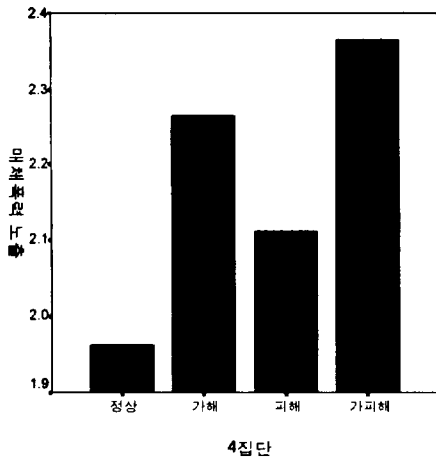


그림 17.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매체폭력 노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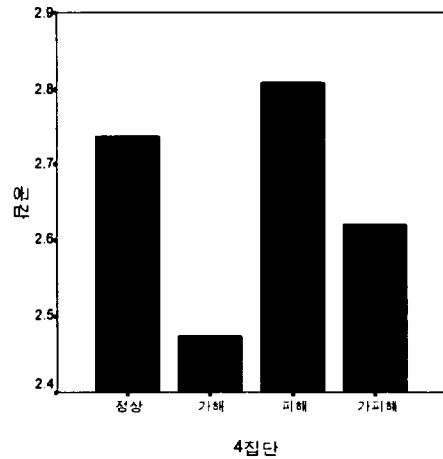


그림 18. 집단괴롭힘 집단간의 공감 정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공감 정도(그림 18)에서 가해집단(M = 1.75)은 정상집단(M = 2.73)과 피해집단(M = 2.80)에 비해 유의미하게 공감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의 예측변인들

이제까지 살펴본 변인들이 집단괴롭힘의 가해현상과 피해현상을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집단괴롭힘 가해값과 피해값이 각각 사용되었다. 이들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변인들이 분석되었고, 이 중 친부모 여부, 아버지직업, 어머니직업, 거주지의 4변인은 더미변수로 전환되어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stepwise 방법이 사용되었다.

집단괴롭힘 가해값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 6)에 따르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또래폭력, 공격성, 가정폭력, 학년, 매체폭력, 아버지직업, 학교 위험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년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학년이 낮을수록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이 많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격성과 학년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들(각각 Beta = .221,

표 6. 집단괴롭힘 가해값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 인	B	SE	Beta	t	p
또래폭력	1.892	.538	.195	3.515	.001
공격성	1.196	.282	.221	4.238	.000
가정폭력	1.397	.402	.193	3.471	.001
학년	-.915	.217	-.209	-4.210	.000
매체폭력	.638	.229	.149	2.787	.006
父직업	-2.179	.975	-.110	-2.234	.026
학교위험도	.447	.212	.107	2.108	.036
(constant)	-4.905	.946		-5.186	.000
R ² = .337, F(7,272) = 20.117					p < .000

-.209)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 7개 변수들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총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 피해값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 7)에 따르면, 집단괴롭힘 피해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학교위험도, 교사폭력, 자존감, 교사지지, 아버지직업, 친구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6개의 변인 중 집단괴롭힘 피해행동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은 교사의 지지(Beta =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친구지지는 집단괴롭힘 피해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덜 받을수록 집단괴롭힘을 더 많이 당할 수 있는 반면, 교사의 지지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집단괴롭힘을 더 당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6개변인들은 집단

표 7. 집단괴롭힘 피해감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B	SE	Beta	t	p
학교위험도	1.391	.438	.295	3.178	.002
교사폭력	1.403	.439	.284	3.196	.002
자존감	-1.356	.624	-.218	-2.174	.033
교사지지	2.645	.706	.355	3.746	.000
아버지	4.300	1.404	.270	3.063	.003
친구지지	-1.462	.644	-.227	-2.270	.026
(constant)	2.451	2.853		.859	.393

$R^2 = .430$ $F(7,276) = 9.673$ $p < .000$

괴롭힘 피해행동에 대하여 총 43%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첫째, 집단괴롭힘의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자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심리적 특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설명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셋째,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에서 가해와 피해행동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집단괴롭힘과 학생들의 사회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집단괴롭힘 4집단은 학년, 용돈, 성적, 학교환경 위험도, 집과 학교환경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모든 학년에서 정상집단의 수가 가해나 피해집단의 수보다 많고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지난 학기동안 경험한 집단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자의 수와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학생들의 수가 유사함을 고려할 때, 집단괴롭힘에 개입된 학생들은 다른 학생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기보다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로부터도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가해자의 수가 피해자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피해 사실을 숨긴다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괴롭힘은 특히 학년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서 중학교내 집단괴롭힘 피해사례가 학년별로 다르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경숙 외, 1988)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결과에 따르면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모두 학년이 낮을수록 많고, 그 중 2학년의 가해행동과 1학년의 피해행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선배인 3학년은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서 1, 2학년에 비해 적은 반면, 집단괴롭힘은 1학년(더 많은 경우 피해자로서)과 2학년(더 많은 경우 가해자로서)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년에 대한 더욱 큰 관심이 요청된다.

집단괴롭힘에 관한 연구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집단괴롭힘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입시위주, 통제위주의 교육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좌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예: 구본용, 1997).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해왔듯이 학업에서의 좌절감이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집단괴롭힘의 주요한 유발요인이라면 성적의 하위경향성이나 성적관련 스트레스는 피해집단에서보다 가해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집단과 가해집단은 성적상위와 중위집단이 비슷한 정도로 많은 반면, 피해집단과 가피해집단은 상위나 중위에 비해 성적 하위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경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정상집단과 가해집단에 비해 가피해집단과 피해집단은 더 많은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성적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다.

성적과 집단괴롭힘간의 관계를 다룬 이춘재와 광금주(1999)의 연구에서는 성적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측정된 것이 아니어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가해집단은 성적 중간 집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춘재와 광금주(1999)의 연구에서 피해집단은 성적 상집단과 하집단에서보다 중간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학업부진과 집단괴롭힘 가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폭력과 같이 집단괴롭힘이 욕구불만이나 학업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Olweus(1978, 198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괴롭힘에 대한 상담적 접근(예: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좌절감 등을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주요원인으로 제시하는 바가 좀더 신중을 기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집단괴롭힘이 학생들의 심리적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4집단은 자존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공격성, 폭력노출, 공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자존감을 고려할 때 정상집단과 가해집단이 피해나 가해피해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괴롭힘에서 피해자 집단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Slee, 1994; Austin & Joseph, 1996), 가해자 집단은 피해자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이춘재·곽금주, 1999; 한종철·이민아·이기학, 1999)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집단괴롭힘 가해학생들은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해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좌절되어 있다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해(어쩌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한편,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자존감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이 아닌 피해행동을 예언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괴롭힘 피해현상이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에서 보면, 가족과 친구지지는 4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교사의 지지에서는 4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정상집단과 가해집단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비슷한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비슷한 정도로 낮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는 이춘재와 곽금주(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정상과 가해집단이 피해집단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교사의 지지는 집단괴롭힘 피해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고, 흥미롭게도 교사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집단괴롭힘 피해현상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유형 중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선생님과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갖는 학생(예를 들어, “선생님께 고자질하는 아이,” “선생님이 편애하는 아이”)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는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경험해온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이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에서 가정, 교사, 또래, 매체로부터 경험한 폭력은 모두 4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해피해집단은 가장 많은 정도로 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다음으로 가해집단, 피해집단, 정상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이 일반적인 학원 폭력과 마찬가지로 집단괴롭힘에서도 모방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상집단에 비해 피해집단이 폭력노출의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은 피해집단도 가해집단과 마찬가지로 폭력노출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피해학생들은 일상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보거나 당해왔고, 이를 통해 폭력 혹은 집단괴롭힘에 대해 익숙해져 있어 자신이 당하는 피해에 무기력한 대응책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추후연구에서 폭력의 노출과 집단괴롭힘 가해, 피해행동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때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단괴롭힘이 공감능력의 결핍과 폭력의 고통에 대해 둔감화된 상태에서 증가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둔감화정도를 살펴본 결과, 공감만이 4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가해집단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공감을 보였고, 다음은 가해피해집단, 정상집단, 피해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결

과에서는 공감능력의 결여가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을 설명하는데는 주요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집단괴롭힘과 관련되어 실시되고 있는 많은 상담프로그램(예: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에서 일관적으로 가해자의 공감능력 결핍을 집단괴롭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에 제동을 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가 갖는 한계는 첫째, 집단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현재 국내의 집단괴롭힘 연구들에서 제기된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제한적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모두에서 유의미한 설명변인임을 밝혔지만, 이와 같은 관계를 결정하는 매개변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에 나타나고 있듯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가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왔으나 왜 한 집단은 집단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고 다른 한 집단은 피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들을 밝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중학교 여학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에 대한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차이나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행동의 차이 등이 함께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금주(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 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곽금주(1999). 왕따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왕따.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69-81,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구분용(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대화의 광장.
 구창모(1991). 청소년 문제론. 서울: 청소년 개발원.
 김용태·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대화의 광장.
 김정수(1997). 부자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양립성 지각과 비행.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연구. 7, 127-138.
 김준호·김혜원(1997). 음란물과 청소년 성비행.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
 류소영(1995). 비행청소년에 대한 분노대처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경숙·손희권·송계명(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손진희·홍지영·양재혁(1998).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신중순(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미·문영춘·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 상담실.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기(1999). 국민일보, 1999년 3월 11일.
 이시형(1997). 학교폭력 실태와 그 예방. 대한의사협회지, 40(10), 1268-1273.
 이시형(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이춘재·곽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이희경(1999). 역할수용을 통한 역할과 개인의 분리와 공감.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휘숙(1995). 청년심리학. 서울: 장승.

- 정미영(1985). 성취관련 및 대인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민(1998). 학교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 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의 허와 실. 학교폭력의 학술적·사회적 대안. 1999년 한국 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41-53.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5.
-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 한종철·이민아·이기학(1999).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1), 95-108.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andura, A., Ross, D., & Ross, S. A.(1961). Transmission of aggression through imitation of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3), 575-582.
- Barker, R. G., Dembo, T., & Lewin, D.(1941). Frustration and aggression: An experiment with young children. *University of Iowa Studies in Child Welfare*, 18(1).
- Carkhuff, R. R.(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 (Vol. on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D'Zurilla, T. J., & Goldfried, M. R.(1973). Cognitive Processes, Problem solving, and effective behavior. In. M. R. Goldfried & M. Merbaum, *Behavior change through self-control*. New York: Plenum.
- Folkman, S., & Lazalus, R. S.(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a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Mullin, C. R. & Linz, D.(1995). Desensitization and resensitization to violence against women: Effects of exposure to sexually violent films on judgement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3), 449-459.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Wiley).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Blackwell. Oxford UK & U.S.A.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Rigy, K.(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on of peer relations.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154(4), 501-513.
- Reasoner, R. W.(1994). *Self-esteem as an antidote to crime and viol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73281).
- Reston, V.(1995). Helping middle level and high school students develop trust, respect, and self confidence. *NASSP(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Practitioner*, 21(4), Apr.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71897).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Tarde, G.(1903). *The law of imi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the Behaviors of Bullies and Victims at School Bullying

Hyewon Kim and Haegyong Lee

Hoseo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explore the effects of various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n school bullying. The specific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1) i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differed among the groups of non-participants,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2)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bullying behaviors, 3) if past exposure to violence is specially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school bullying. A sample of 827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In results, 1) non-participants,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iffered in their grade, school-achievement, monthly spending money, satisfaction with home and school environment, self esteem,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level of stress, passive strategies for stress, aggressiveness, exposure to violence, and sympathy. 2) Exposure to peer's violence, aggressiveness, exposure to family's violence, grade, exposure to mass-media's violence, father's job, and feeling of danger on school environment were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bullies' behaviors. Whereas, feeling of danger on school environment, exposure to teachers' viol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from teachers, father's job, an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were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victims' behaviors. On the base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variables related to school bullying and possible interventions were discussed.